변화무쌍한 인간 마음, 그 속에 부처가…



新 불교사자성어

⑱ 심여화사(心如畵師)

'심여화사(心如畵師)' 는 '우리의 마음이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는 뜻이다. 〈화엄경〉에 나오는 '불교사자성어' 로서 변화무쌍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다.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한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변한다.' 고 풍자한다.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은 미세하게는 하루에 만 번 정도 움직인다고 한다.

한 끼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무슨 반찬부터 먹을까?' 하고 생각한다. 실제 자세하게 관찰해보면 젓가락을 잡고서도 1~2초 사이에 마음이 오락가락한다. 어떤 반찬을 먹을까? 반찬의 가짓수와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이 반짝거린다. 옛적의 어느 학자는 그런 고민이 싫어서 무조건 앞에 있는 것부터 먹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고 하나보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늑대인가 양인가?' 라고 하여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이라는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형체없는 '마음' 깨달음"

맹자는 성선설을,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지만, 에리히 프롬의 분석과 같이 성선(性善)과 성악 모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더 확실한 파악일지도 모른다.

유심(唯心)의 철학을 설하고 있는 대승경전인 〈화엄경〉에는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心如工畵師), 마음대로 모든 세간상들을 그려낸다(能畵諸世間)"고 하였는데 여기서 '세간' 이란 모든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갖가지 번뇌와 망상을 가리킨다. 물론 부처님 같은 생각도 그려 낸다.

슬픔도 마음이 그려 낸 것이고 기쁨과 근심 걱정도, 그리고 웃음과 눈물도 자신의 마음이 그려낸다. 극락도 지옥도 마찬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다"고 하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같은 말이다.

우리는 똑같은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욕망이 가득하면 그것이 곧 고통의 세계, 지옥의 세계이다. 그러나 무욕하게 지혜의 마음으로 보면 곧 극락이 된다. 무지로 인해 방황하면 그곳이 곧 살아 있는 지옥이고 반야지혜로 자신을 지키면 그곳이 유토피아인 극락이다.

사바세계와 극락은 곧 우리의 마음, 자기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것, 나쁘다 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또 〈화엄경〉에는 "심생즉 종종법생(心生則 種種法生), 심멸즉 종종법멸(心滅則 種種法滅)"이라고 하여, "우리의 이 한 마음, 즉 번뇌가 일어나면 일체 모든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 한 마음이 사라지면 일체 모든 현상들도 동시에 다 사라져 없어진다"고 하였다.

달마의 〈혈맥론〉에는 "마음, 마음, 마음이여. 찾을 수가 없구나. 넓을 때는 온 세상을 다 감싸고 포용하다가도, 좁아지면 바늘구멍도 받아들이지(수용) 못한다"고 하여, 신기한 마음의 세계, 변화무쌍한 마음의 다양성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선에서는 '심즉시불(心卽是佛)' 이라고 하여 '마음이 곧 부처' 라고 한다. 이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라고 한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바로 포착 불가능한 형체가 없는 이 마음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이다.

〈대승기신론〉에도 중생의 마음속에 '부처가 되는 마음과 중생으로 전락하는 마음(심진여문, 심생멸문)' ,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깨달은 부처가 되기도 하고, 미망의 가을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중생이 되기도 한다. '변화무쌍한 마음' , 그 마음에서 '위대한 부처' 가 탄생한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넘어뜨릴 줄만 아는 '운문'



격절록 강설

⑱ 제6칙 앙산지설(仰山指雪)

[古則과 着語]

擧, 仰山指雪獅子云 "還有過此色者麼" (瞎) 雲門云 "當時便與推倒" (不奈船何 打破庠斗)

앙산(仰山, 807~883)이 설사자(雪獅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색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가?" [할(瞎, 눈이 멀었다)!]

운문(雲門, 864~949)이 말했다.

"당시에 바로 밀어서 넘어뜨렸어야 했다." [(구멍 나 물새는) 배는 어찌하지 못하고, 두레박만 깨고 있다.]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只解推倒 不能扶起" (將錯就錯)

설두가 염(拈)해서 말했다.

"(운문은) 다만 밀어서 넘어뜨릴 줄만 알았지, 부축해서 일으켜 세울 줄은 몰랐다."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군.]

[評唱 1]

師云. 仰山侍奉溈山 前後二十餘年 乃去行化. 一日歸省侍溈山 山問 "子稱善知識 爭辨得 諸方來者 知有不知有 有師承無師承 是義學是玄學 試說看" 仰山云 "有箇驗處 但見諸方僧來 竪起拂子 問伊諸方還說這箇 不說這箇 這箇且置 諸方老宿意作麼生" 溈山歎曰 "此是宗門中牙爪"

앙산은 위산(溈山, 771~853)을 전후 20여 년 시봉하면서 수행과 교화(行化)를 함께 했다. 하루는 돌아와 위산을 뵙고 모시고 있는데, 위산이 물었다.

"그대는 (이미) 선지식이라 불리는데, 제방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있음을 아는지(知有) 있음을 모르는지(不知有), 스승을 이어 받은 것인지(師承) 스승을 이어 받은 것이 아닌지(無師承), 의학(義學)을 한 것인지 현학(玄學)을 한 것인지, 어떻게 가려내겠는가? 시험 삼아 말해보라."

앙산이 말했다.

"한 가지 시험해 보는 것(驗處)이 있는데, 제방에서 스님이 오면 다만 불자(拂子)를 세우고 그에게 묻기를 '제방에서 이것(這箇)을 말하는가, 이것을 말하지 않는가?' 라고만 합니다. 또한 이것은 놔두고, '제방의 노장들의 뜻(老宿意)은 어떤가?' 라고 묻습니다."

위산이 칭찬하며 말했다.

"이것이 종문(宗門)에서 수행자를 제접하는 가장 엄격한 수단(牙爪, 爪牙)이다."

✻선문염송집 제 14권, 고칙 567에서는 "이 색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가?"라는 앙산의 물음에 대중이 대답이 없었고, 이에 대해 운문이 염하기를 "당시에 바로 밀어서 넘어뜨렸어야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현학(玄學)의 사전적인 뜻은 노장사상에 의거한 학문이지만, 여기서는 의학(義學, 문자에 의지해 교의를 연구하는 학문)의 상대적인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하다.

✻위앙종(溈仰宗): 위산 영우(溈山靈祐)와 그의 제자 앙산 혜적(仰山慧寂)에 의해 비롯된 종파. 위산은 복건성 복주(福州) 출신으로 15세에 출가하여 백장 회해(百丈懷海)의 법을 이었고, 호남성 담주(潭州) 대위산(大溈山)에서 선풍을 일으켰다. 앙산은 광동성 소주(韶州) 출신으로 17세에 출가하여 위산의 법을 이었고, 강서성 앙산(仰山)에 머물렀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⑱ 믿음 편 18

책임과 권위 상징 약사여래

"책임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권위가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수 없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의 말이다. 권위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준엄한 뜻이 담겨있다. 예를 들어 의사는 병자에 대해 치료라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권위를 갖게 된다. 특히 의사는 생명이라는 절대 가치를 다룬다는 점에서 더욱 더 그렇다. 의사들에게 존경과 권위의 상징인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이유도 그 책임의 무게 때문이다.

책임은 본래 어떤 요구나 부름에 대한 반응(response)을 의미한다. 예컨대 어린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면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반응을 보인다. 이것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절대적 책임이자 의무다. 책임을 영어로 '반응' 을 의미하는 'responsibility' 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약사여래는 이러한 책임과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다. 약사신앙은 약사여래의 본원력(本願力)에 의지해 중생들의 질병을 치유하려는 바람에서 비롯되었다. 이분은 본래 약사유리광여래(藥師瑠璃光如來), 또는 대의왕불(大醫王佛)이라고 부른다. 유리와 같은 칠보(七寶)로 장엄된 정토인 동방 정유리세계(淨瑠璃世界)에 머물면서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물리치는 의사이자 약사인 부처다.

약사여래는 전생에 약왕(藥王)이라는 보살로 수행하면서 12가지 큰 서원(大願)을 세웠다고 전한다. 모두 중생들의 고통을 소멸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중생들의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이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며, 외도에 빠지거나 죄를 지은 자들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간절함이 담겨있다. 약사신앙 역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대승불교의 이상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선덕여왕이 병에 걸렸을 때 밀본(密本)이라는 승려가 〈약사경〉을 염송하고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전한다. 또한 경덕왕 때는 경주 분황사에 30만 7천 600근의 구리로 만든 거대한 약사여래를 안치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약사신앙이 일찍부터 유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삼국전쟁으로 수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사여래는 대중들에게 구원이자 희망이었다. 약사여래는 중생이 아프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부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약사신앙은 오늘에도 대중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 보현보살을 모신 전각을 대웅전이라 한다. 그런데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약사여래 세 분의 붓다를 모신 전각은 특별히 대웅보전(大雄寶殿)이라 높여 부른다. 물론 이곳에 삼세불(三世佛)이나 삼신불(三身佛)을 모시기도 한다. 약사여래는 바로 이 대웅보전에 모셔진 분이다. 이는 곧 약사여래가 불교에서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생구제라는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분을 따로 모신 약사전에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그리고 손에는 항상 약함이 들려있다. 중생이 아프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약사신앙이 오늘날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 약사들의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픈 환자가 있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의사로서의 반응, 즉 책임이라는 것을 약사신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의료계가 그러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환자를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본다는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사찰에 가면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약사여래를 종종 만나게 된다. 중생들이 아프기 때문에 환한 표정을 짓지 못하는 것이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중환자 앞에서 낄낄대며 웃는 모습과 묘하게 오버랩 된다. 책임 없는 권위는 모래 위에 쌓은 누각((沙上樓閣)일 뿐이다. 오늘날 약사신앙이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